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 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 -

이토 히데토(伊藤英人)*

I.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동경외국어학교

한국어는 일본에 있어서 중국어와 더불어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학습되어 온 언어이다. 한반도, 즉 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한반도의 언어를, 중간에 중단된 시기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교육하여 온 지역은 일본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續日本紀』에는 761년에 미노(美濃), 무사시(武藏) 양 지역의 소년 각 20명에게 신라어를 배우게 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815년에는 對馬島에 新羅譯語가 설치되었다.¹⁾ 일본의 한국어 학습은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주로 대마도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확립된 제도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에도(江戸) 시대의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외교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쓰시마(對馬)藩이 1727년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건의에 의하여 대마도 후추(府中)에 설치한 조선통사(朝鮮通詞) 양성기관을 그 효시로 한다. 아메노모리 호

* 일본 동경외대

1) '令美濃武藏二國少年每國廿人習新羅語'(『續日本紀』天平寶字五(761)年正月條).
'是日停對馬史生一員置新羅譯語'(『日本後紀』弘仁六(815)年正月六日條).

슈는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한국어 학자이자 유학자로서 1703년과 1705년에 부산 倭館에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였으며, 메이지(明治)시대까지 사용된 한국어 교과서인 『交隣須知』의 편찬에도 관여했다. 이 통역관 양성을 위한 학교는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유지되었는데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韓語稽古規則』에 의하면 학생들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어학훈련을 받고 한 달에 8번 정도 시험을 치렀으며 교재로 『韓語集詞』, 『交隣須知』, 『隣語大方』 등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유신 후 藩이 폐지되어 縣이 설치됨에 따라 대외 관계를 직접 관할하게 된 외무성은 쓰시마(對馬)藩의 한국어 교육 체제와 인재를 인수하는 형태로 1872년에 대마도 이즈하라(嚴原, 府中을 개칭)에 외무성 이즈하라 한어학소(外務省 嚴原韓語學所)를 설치했다. 이 이즈하라 한어학소는 그 다음 해인 1873년에 당시 일본 공관이 있었던 부산 草梁館에 이전되어 이에 외무성 초량관 어학소(外務省 草梁館語學所)가 개교하게 되었다. 일찍이 1873년에 설립된 관립 東京外國語學校(현 동경외국어대학)에, 1880년 朝鮮語學科가 설치됨에 따라 草梁館語學所가 폐지되어 草梁館語學所의 교수와 학생은 외무성으로부터 文部省으로 이관되는 형식으로, 신설된 동경외국어학교 朝鮮語學科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쓰시마(對馬)藩 이래 행해져 온 한국어 교육을 동경외국어학교에서 계승하게 된 셈이다. 1880년도판 『東京外國語學校一覽』에 실린 커리큘럼에 의하면 1, 2학년에서 『交隣須知』, 『隣語大方』 등이 교수되고 3학년 이후에는 『구운몽』, 『옥교리』, 『임경업전』, 『유서필지』 기타 경서연해류 등의 교재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인 한국어, 한국 역사, 지리 이외에 대수, 기하, 체조 등의 필수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학교 교육 제도하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게 된 것도, 동경외국어학교에 朝鮮語學科 설치된 것을 그 효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졸업생 중에 한국어, 한국사 연구자로 알려진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있다.

그 후 1886년에 동경외국어학교는 동경상업학교(현 히토쓰바시대학)에 흡수되면서 폐교되어, 한국어 교육은 동경외국어학교가 다시 부활 설치될

때까지 약 10년간 중단되었다. 1897년 학교 부활과 동시에 韓語學科가 설치되어 한국어 교육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1927년 ‘帝國의 한 지방 언어에 불과’한 한국어를 ‘외국어’ 학교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문부성의 견해에 따라 한국어 학과가 폐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 관립 학교 제도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전폐되었고, 한국어 연구의 측면은 그 전년도인 1926년에 설치되었던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朝鮮語 朝鮮文學科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패전 후 일본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는 1925년부터 사립 학교로서 한국어를 교육해 온 덴리(天理)대학이 그 중심이 되었다. 朝鮮學會(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ology in Japan) 대회가 해마다 天理大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학술지 간행, 天理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 온 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등 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후의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학 센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 후 1965년에 오사카(大阪)외국어대학에 朝鮮語學科가 설치되어 전후 국립대학 최초의 한국어학과가 탄생하였다. 일본에서 최대의 재일 한인 집중 거주지역인 오사카라는 지리적 조건에 놓인 오사카외국어대학은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을 꾸준히 지향하였다. 설치 직후부터 한국어 시민 강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대역 사전 편찬에 착수해 20년 후인 1985년, 총 어휘수 약 21만개를 수록한 對譯 辭典으로서는 최대규모인 『朝鮮語大辭典』을 간행하였다. 전후에 관립학교로부터 국립대학으로 승격된 동경외국어대학에 朝鮮語學科가 부활 설치된 것은 폐지로부터 50년 후인 1977년이었다. 같은 해에 도야마(富山)대학 人文學部에 朝鮮語朝鮮文學코스가 개설되었다.

부활 후 동경외국어대학 朝鮮語學科의 한국어 교육은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동경외국어학교 시기의 그것을 전혀 계승함이 없이 새로이 시작되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듯이, 그 교육 내용은 한국어 문법과 연구자의 계보 즉 학통 등으로 보아 戰前 시기 이래 누적되어 온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어사 연구 성과를 반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1977년의 학과 부활과 동시에 부임한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는 동경교육대학(현

쓰쿠바대학)에서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노 로쿠로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제자로서 京城帝大에서 『朝鮮方言學試攷』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어 연구에 종사했으며 일본의 한국어 연구를 전후에 계승하였다. 간노 히로오미에 의해 확립 정비된 동경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육에는 후술할 語基(base) 등, 고노 로쿠로에 의해서 도입되어 일본인 한국어 연구자들에 의해 특히 한국어사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이 점에서 다른 기관의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어 온 문법 용어 등과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2에서 용언 어간의 분석 처리에 있어서 도입된 語基 개념을 이 술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다른 한국어 문법 등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3 이하에서는 동경외국어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그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語基

고노 로쿠로 외 편, 三省堂 『言語學大辭典』 제6권 술어편의 ‘語基’ 항목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교착어형 언어에서는 명사와 특히 동사어간에 여러 접사(affix)들이 붙음으로써 복합체(complex)를 형성한다. 이 경우 접사가 붙는 어간의 형태를 語基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 용언의 활용형²⁾은 어기이다. 終止形, 連體形, 連用形, 命令形이라 불리는 활용형은 단독으로 사용되어 각각의 문법적 기능을 다하는데, 현대일본어에 있어서 未然形과 假定形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일정한 助動詞 내지 助詞³⁾가 붙는다. 즉 이 두 활용형은 조동사와 조사가 붙기 위한 어기이다.

2) 일본어 학교 문법에서 용언의 활용을 동사 hanasu(말하다)를 예로 들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未然形 hanasa-, 連用形 hanasi, 終止形 hanasu, 連體形 hanasu, 假定形 hanase-, 命令形 hanase.

3) 여기서 조동사라 함은 -reru(존경), -masu(공손) 등 그것 자체가 활용하는 용언

명령형을 제외한 다른 활용형 역시 일정한 조동사 내지 조사가 붙기 위한 어기가 될 때가 있다. 일본어 용언의 활용은 이렇게 어기의 변화로 볼 수 있다(546쪽).⁴⁾ 같은 책 ‘활용(conjugation)’ 항목(223쪽)에는 ‘일본어의 활용 즉 어기변화는 동사 혹은 형용사, 형용동사⁴⁾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동사도 용언복합체(verb complex) 안에서 후속되는 조동사, 조사의 종류에 따라 어기변화를 일으킨다. 한국어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어 용언에 일본어 용언의 활용형과 유사한 thematic vowel의 교체형을 인정하여 이를 제시한 것은 중세한국어 연구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龍歌古語箋』(1924)이 처음인 것 같다. 여기에서는 ‘국어(일본어, 인용자)의 活用圖와 유사한 것’의 예로서 동사 ‘잡다’의 ‘잡-, 자바-, 자바-, 자보-’의 4개 형태를 들고 있지만 이를 ‘어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현대의 어법’에서는 ‘諧音’ 즉 모음조화가 ‘連用의 어’에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鮮初의 어법’에서는 ‘아/어, 오/우, 으/으’의 6개 모음이 출현하므로 이렇게 처리했음을 밝히고 있다.⁵⁾ 한국어 용언의 이러한 처리가 현대어가 아닌 중세한국어 연구에 연유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현대한국어를 포함해서 ‘활용어기’로 간주한 것은 고노 로쿠로(1946)인데, 이 개념은 그 후 특히 일본의 중세한국어 및 근대한국어 연구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몇 가지 용언의 ‘어기활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방점도 표시했음).

I(-·다) II(-·면) (II-·시-) III(-·씨) IV(-·더)

접사이고 조사는 -ba(가정), -na(금지) 등 용언 어미류를 말한다.

- 4) 형용동사는 활용의 유형을 달리한 형용사의 하위 분류이다.
- 5) 마에마 교사쿠(1924, 1974:21-22). 마에마 교사쿠에 의한 현대한국어 문헌인 『韓語通』(1907, 1974:154-155)에서는 ‘우리 나라 말 동사에는 활용이라 일컬어져 온 語基라고도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있어 -a, -i, -u, -e 등 모음을 일단 어근에 붙여 놓은 다음에 어미를 붙임이 상례이나, 朝鮮語에는 어기라는 형태가 없고 조동사는 직접 어근에 붙여진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동사를 첨가할 경우에는’ ‘모음의 동화로 인해 생기는 變態’ 즉 ‘아/어’와 ‘소리의 조화를 위해 조동사 앞에 놓인 으’를 인정하고 있다.

잡	자·ㅂ	자·ㅂㅏ	자·보
먹	머·그	머·거	머·구
주	주	·주·어	:주
:알/아	:알/아 (:아·르)	아·라	아·로
:물	무·르 (:무·르)	무·러	무·루
들	드르	드·러	드·루
눅	누보	누·버	누·부
:연	:어드	:어·더	:어·두
-·이(지정사)	·이/·이·르	·이·라	·이·로

상성변동과 비변동, ‘들다’, ‘눅다’ 등의 제Ⅱ어기 모임의 평성으로서의 출현 등 액센트(성조) 변동 역시 어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온 일본의 중세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는 이러한 어기에 의한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다.

위에 든 바와 같이, ‘이른바 조동사도 용언복합체(verb complex) 안에서 후속되는 조동사, 조사의 종류에 따라 어기 변화를 일으키는’ 일본어의 예에 따라,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를 어기 활용의 유형별로 그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II III IV가 구비된 것 : I:습 II:ㅅ·ㅅ III:ㅅ·ㅂㅏ IV:ㅅ·보 (겸양, 존경)
 I/II와 IV가 대립되는 것: I/II·더 IV·다 (시상, 확인 등)
 I II IV가 출현되는 것 : Iㅅ II·스 IV·소 (감동)

현대 한국어 기술에 있어서도 어기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이 한국어 교육에 도입된 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경외국어대학에서부터였다. 즉 현대 한국어의 ‘잡으면’, ‘잡아서’를 ‘잡-으면’, ‘잡-아서’가 아니라 ‘잡으-면’, ‘잡아-서’로 보고 ‘잡으’, ‘잡아’를 동사 ‘잡다’의 ‘제Ⅱ어기’와 ‘제Ⅲ어기’라는 활용형으로 보는 입장이다. 변격용언의 어기활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II	III
짓다	짓	지으	지어
듣다	듣	들으	들어
춡다	춡	추우	추워
그렇다	그렇	그러	그래
어쩌다	어쩌	어쩌	어째
모르다	모르	모르	몰라
이르다	이르	이르	이르러
하다	하	하	해/하여

이와 같이 어기설에 의한 교육방법에서는, 변경용언을 설명할 때 어미에 대한 언급이 없이, 용언의 활용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각 어기에 붙어 용언복합체(verb complex)를 형성하는 ‘접미사’의 어기 활용은 다음과 같다.

	I	II	III
겠(I+)	겠	겠으	겠어
쓰(III+)	쓰	쓰으	쓰어
시(II+)	시	시	셔/세/사
사옵(I+)	사옵/삽	사오	사와

예를 들면 ‘알았어요’는 ‘알-았-어요’가 아니라 ‘알아-쓰어-요’로 분석되는 셈이다. 왜 모음조화를 따라 ‘*알았아요’가 되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알다’의 제III어기인 ‘알아’에 과거를 나타내는 ‘쓰’(용언의 제III어기에 붙음)이 붙었는데, ‘쓰’ 자체의 제III어기는 ‘쓰어’이므로 ‘요’(III+) 앞에서 ‘쓰어’가 되었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어기에 의한 한국어 교육은 동경외국어대학과 간다외어대학(神田外語大學)에서 한국어학과 설치 이래로 실시되어 왔고 시판되는 한국어 교과서 중에도 이를 따르는 것이 많이 있다. 또 한국어 학습사전인 ‘코스

모스 조화(朝和)사전(하쿠수이샤 白水社 1988)은 전면적으로 이 어기의 관점에서 편찬되어 있다. 즉 예를 들어 ‘과거’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았/었’이 아니라 ‘ㅌ’으로 올라 있다. 또 모든 용언어미와 용언접미사는 ‘I-고, II-면’과 같이 각각 그것이 붙는 어기활용형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사전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되는 『朝鮮語辭典』(쇼가쿠칸 小學館 1993)은 어기설에 따르지 않고 ‘알-았-어요’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어미’와 ‘보조어간’을 다음과 같이 5개의 ‘류’로 나누고 있다.

- | | |
|----------------------|-----------|
| 1류: -고, -다, -지만 | |
| 2류: -습니다/-습니다, -는 | 만드는 |
| 3류: -은/-니, -으시-/-시- | 만든, 빨간 |
| 4류: -으면/-면, -으라고/-라고 | 만들면, 빨가므로 |
| 5류: -아요/-어요, -았-/-었- | |

1류는 어미가 교체형을 가지지 않고 접속되는 어간이 모든 용언에서 일정한 형태인 것이고, 2류 이하는 어미가 교체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2류는 ㄹ어간 용언만이 기본어간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 3류는 자음어간에서 모음 -으-가 삽입되면서 어간은 ㄹ어간과 ㅂ, ㅅ, ㄷ, ㅎ 변격, 즉 ‘변칙 자음어간 용언’에서 기본어간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 4류는 3류와 같으나 ‘변칙 자음어간 용언’에서만 기본어간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 5류는 어미가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형을 가지고 ‘변칙 자음어간 용언’과 ‘으변’, ‘르변’, ‘리변’, ‘하변’ 등 ‘변칙 모음어간 용언’에서 기본어간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어기설에 따르면 조건을 명시하기 어려운 ㄹ어간 용언의 처리를 감안한 것인 동시에, 학습자가 나중에 한국에서 출판된 국어사전류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어간과 어미의 인식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오사카외국어대학 편 『朝鮮語大辭典』 역시 ‘알-았-어요’로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미류를 크게 교체형을 가지는 ‘雙對式’

과 교체형을 가지지 않는 ‘단일식’으로 나누고, ‘쌍대식’을 ‘連音系’ 즉 매개모음 ‘으’가 들어가는 것과 ‘아/어’와 같은 ‘모음조화계’로 이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의한 교육방법은 특히 변경용언 학습이 어미에 대한 언급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학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한국어 용언의 어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로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에게 어기설을 따르지 않는 사전들과의 차이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Ⅲ. 동경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육 - 1학년을 중심으로

1. 교재

동경외국어대학 동아시아과정 朝鮮語專攻에 1999년 5월 현재 재학 중인 학부 학생 수는 모두 154명으로서 그 중 1학년은 33명이다. 자신이 전공할 언어를 선택하고 입학한 학생들은 1, 2학년 때에 집중적으로 어학 훈련을 받는다. 1주일에 6번(각 90분)씩 한국어 수업을 받게 되는데,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 ㄱ.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1981, 『朝鮮語の入門』(‘한국어입문’)
- ㄴ.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1988, 『길 朝鮮語への道』(‘길 한국어로 가는 길’)
- ㄷ. 권재숙(權在淑), 1998, 『これからの朝鮮語』(‘앞으로의 한국어’)

3권 모두 여기에 의해 문법을 설명한 교재이다. 이들 가운데 ㄱ의 ‘한국어입문’이 중심이 되는 교재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전과 단어집으로는 상술한 바 있는 ‘코스모스 조화사전’과 쇼가쿠칸 ‘朝鮮語辭典’, 그리고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9)의 『暮らしの單語集 韓國語』(어휘수 3598)가 사용된다.

2. 수업 구성과 진도 관리

전공 어학 수업은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수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담당자	교재	수업의 목적
a. 노마	'길 한국어로 가는 길'	구어체를 중심으로 한 문법과 작문
b. 엄기주	'길 한국어로 가는 길'	청취력과 발음 훈련
c. 권재숙	'앞으로의 한국어'	구어체를 중심으로 한 표현능력 양성
d. 사에구사	'한국어입문'	정서법 규칙과 문법
e. 이토	'한국어입문'	정서법 규칙과 문법, 한자음
f. 고동호	'한국어입문'	받아쓰기, 발음 훈련

위에서 a와 b, 그리고 d, e, f는 각각 같은 교재를 사용하며 이른바 릴레이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수업의 진도를 한국어학 담당 교수인 노마교수가 관리한다. 즉 학생들의 달성도를 보아가며 몇 월 몇 일 몇 교시 수업은 어디까지 하고 언제 시험을 보라는 등의 요청을 적은 연락 노트를 각 담당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3. 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단어시험, 기타 수시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단어시험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단어집(어휘수 3598)에서 출제된다. 이 단어집은 분야별로 배열된 학습용 어휘집으로서 ***제1차 중요단어(440개), **제2차 중요단어(591개), *제3차 중요단어(1629개), 무표시(938개)로 단계별 표시가 되어 있다. 1, 2학년 동안에 이 단어집에 나오는 단어 모두에 대해 단계별로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한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4월 초에 연간 단어시험 실시 일정과 범위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1년에 15번 정도 시험을 본다. 단어시험이 아닌 보통시험도 수시로 실시한다.

1999년도 1학년 학생들은 1학기에 단어시험을 제외하고 14번 시험을 보았다. 시험의 결과는 연락 노트에 기입하고 진도 관리와 학생 개인 지도에 반영된다.

4. 교육 내용과 달성도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문자와 발음, 문법, 어휘에 대해서 1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문자와 발음

6개 수업 중 3개가 '한국어입문'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입문'이 수업에서 중심적인 교재가 된다. 이 교재의 학습 사항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진도는 연도마다 차이가 나므로 평균적인 속도에 준함).

제1회

초성(ㄹ ㄱ ㅁ ㅂ ㅅ ㅇ ㄷ ㅌ ㅈ ㅊ), 모음(ㅏ ㅑ [ɔ] ㅓ ㅕ ㅡ ㅣ ㅗ ㅛ ㅜ ㅠ ㅡ),
 유성음화1(바다[pada]), 격음초성(ㅋ ㅌ ㅍ ㅈ ㅊ), 경음초성(ㄱ ㅌ ㅍ ㅈ ㅊ
 ㅅ)

*초성에서 'ㄴ ㄹ ㄱ ㅁ ㅂ ㅅ ㅇ ㄷ ㅌ ㅈ ㅊ'의 순서를 취한 것은 유성/무성 대립이 음운론적으로 관여적인 일본어 화자는 가가[kagja]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음 ㅓ는 [ɔ]로 표기를 하지만 원순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제2회

종성1(ㅂ ㅅ ㄷ) ㄱ ㅁ ㅇ ㄴ ㄹ), 장모음, 유성음화2(감기[ka:ngi], 갈비 [kalbi]),
 ㄹ+ㄹ(발로[pallo])

*중성 가운데 ‘ㄹ’ 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어에서 음성으로서는 존재하나 음소로는 구별되지 않음을 의식케 한다. ‘ㄱ’의 장음은 [a:]가 아니라 [ɔ:]로 되어 있다.

제3회

합성모음자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반절표

*‘ㅘ’는 [we], ‘ㅙ’는 [wi]로 한다. 즉 8모음 체계로 가르친다. 이 교재에서는 모음자의 구성에 주목해서 ‘ㅘ ㅙ’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2개 교재는 일본어와의 차이를 인식케 하기 위해 단모음 8개를 일본어와 대조시켜 ‘ㅏ ㅣ ㅓ ㅕ ㅗ ㅛ ㅜ ㅠ’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회

중성의 초성화(산은[사는], 밥은[바븐])

*일본어 화자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므로 거듭 연습시킨다.

제5회

‘ㅎ’ 유성음화(담화[tamfwa]), 격음화(입학[이팍]), 경음화(압도[압또]), 비음화(학년[향년], 달는다[단는다], 입문[임문]), 유음화(신래[실라], 찰나[찰라]),

유음의 비음화(심리/십리[심니], 독립[동닙])

*비음화는 초기 학습 단계에서 항상 발생하는 장애이다.

제6회

‘ㅎ’중성+초성(종대[조타], 꿩지[근치], 잃고[일꼬], 넣습니다[너쑤미다], 넣는다[넌는다]),

‘ㅎ’중성+모음(넣어서[너어서], 꿩어서[근너서]),

용언어미의 경음화(안대[안따], 심고[심꼬])

중성2(포 트 츠 쓰 카 기 꺾 기 나 리 래 래 리 리)

*뺨고[밥꼬]와 넓대[널따], 닭과[닥파]와 잃고[일꼬] 등의 구별도 여기에서

도입된다. ‘활는다’, ‘옴는다’ 등은 이전에 배운 규칙을 기억하지 않으면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제7회

구개음화(같이[가치], 굳이[구지]), 한자어 두음법칙(로동→노동)

제8회

조사와 단어결합의 발음 차이(꽃이[꼬치], 그러나 꽃 위[꼬 뒤]),
 ‘르’로 시작되는 한자접미사의 발음(구인란[구인난])
 ㄴ삽입 (밭일[반닐], 서울역앞역[서울려감녁])

제9회

사이스과 경음화(바닷가[바다까], 길가[길까])

제10회

한자어의 경음화(ㄹ+ㄷ스, 외과[외과])
 자음자모 명칭(남북)과 사전 찾는 법

이상의 정서법과 발음에 관한 규칙을 보통 10번만에 마친다(1999년도는 5월 19일. 이 사이에 도입되는 문법 형태소는 후술함).

현대한국어의 형태음소론적 정서법은 문자를 먼저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극히 어렵다. ‘i c'aik mos 'irk-na (이 책 못 읽나?) [itʰɛ ɔmɔnnɔŋnal], ‘i tark-man (이 담만) [idagman]’ 등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려면 종성규칙, 비음화, ㄴ삽입, 유성음화 등의 규칙을 단계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 이들 규칙을 한국어 학습의 최초단계에서 철저히 학습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한글로 된 문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 언젠가는 꼭 터득해야 할 현대한국어의 형태음소론적 정서법 규칙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배운 경험이 없어 단계적으로 정서법 규칙을 학습해 나감으로써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학습의 첫 단계에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해서 1998년도부터 사용하게 된 다른 2개 교재는 문자보다는 음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편이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문법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즉 4월부터 7월 초순에 걸친 석달 동안에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가르친다. 이 기간에 배우게 되는 주요 문법형식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

가/이, 를/을, 로/으로, 예, 에게, 에게서, 에서, 부터, 까지, 보다, 의, 처럼
 르, 한테, 께, 한테서, 서
 와/과, 하고
 는/은, 도, 만, 라도/이라도, 나/이나, 나, 들

용언어간

어기활용(변격용언을 포함한 모든 활용 유형)
 구어체에서 쓰이는 어기 활용형 '되다 Ⅲ되어(北되어)/돼(구어)'

용언접미사와 그 어기활용

I-겠-, II-시-, III-쓰-
 III-지다, 한자어-시키다, 한자어-되다

종결형어미

I-다, I II-ㄴ다/I-는다, II-버니다/I-습니다, II-십시오, II-세요,
 I-지요/I-죠(구어), I-군요, I-는군요, II-십시오, III-요, II-르까요

관형사형어미

I-는, II-ㄴ, I-던, III-쓰던, I-다는, I II-ㄴ다는/I-는다는, I-라는

접속형어미

I-고, III-서, II-며, III-∅, I-거나, II-면, III-쓰더니, I-는데, II-는데,
II-니까, I-지만, I-라서, II-면서, II-러, I-도록, I-게,
I-다고, I II-나다고/I-는다고, I-라고

체언형어미

I-지, I-기, II-ㄴ

분석적 형식

가/이 아니다, I-지 않다, I-고 있다(계시다), III-∅ 있다(계시다), III-∅ 주다,

III-∅ 보다, III-∅ 보이다, III-∅ 가다, III-∅ 오다, II-려고 하다, III-쓰 으면 좋겠다,

I-는 길에, 관형사형+것 같다, I-기는 하다, I-기도 하다, I-기 때문에, I-기 시작하다,

I-기로 하다, II-르 것이다, II-르 때, 가/이 되다, 관형사형+줄로 알다, I-게 되다,

III-야 되다, III-야 하다, II-르까 하다, II-르 수 있다(없다), III-∅ 드리다, III-∅ 놓다,

III-도 되다, I-고 싶다, 를/을 위한(위하여)

위에 든 문법사항을 매년 7월까지 가르친다(1999년도에는 7월 8일에 종료했음). 이 가운데 조사 '가/이, 를/을, 로/으로, 에, 에게, 에게서, 에서, 부터, 까지, 보다, 의, 처럼' 와 종결형어미 'I-다, I II-나다/I-는다'는 지시대명사들과 함께 정서법 규칙을 배우는 과정에서 도입된다.

1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위의 항목은 일본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생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발음과 정서법 규칙
- ② 대표적인 격조사와 보조조사, 그 구어형(-르, 한테)

- ③ 변격용언을 포함한 용언의 어기활용
- ④ 종결, 관형, 접속형 중 대표적인 형태 및 체언형
- ⑤ 시제, 서법 접미사와 그 어기활용
- ⑥ 여러가지 문법적 기능을 다하는 분석적 형식들

논설문과 같이 한자어가 많은 문장은 위에 든 것과 같은 문법형태를 학습한 일본어 화자들에게는 어려움 없이 독해가 가능한 것 같다. 여름방학 숙제로서 신문 기사, 사설 등을 내고 개학 후에 시험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로 미루어 독해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어체에 나타나는 형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소설, 문학작품, 각본, 만화 그리고 방송교재 등은 논설문의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본어 화자 학습자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2학기부터 2학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한국어는 문장어와 구어의 차이가 큰 언어이다. 1997년 이전에는 1학년 1학기는 문장어를 중심으로 한 형태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어형을 가르쳤으나 98년도 이후에는 처음부터 구어체도 도입하고 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나오면 곧 이어서 ‘이게 뭐니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려고 한다’와 ‘하려고 그러다’, ‘해서’와 ‘해 가지고’ 등 2학기 이후에도 문장어와 구어의 대응관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축약형’은 아주 짧은 어미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 보고 뭐래? 우리 다 같이 거기 가래?’

‘아냐, 나 보고 혼자 가래.’

예를 들어 위와 같이 보통 소설책에도 나올 수 있는 대화문도 밑줄 친 축약형 어미들의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뜻을 알 수 없다. 또 ‘한대’와 같이 傳聞의 기능만을 가진 것과 ‘한단다’처럼 전문과 강조의 기능을 가진 것을 체계적으로 구별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도 학생들이 어렵

게 느끼는 부분의 하나가 된다.

동경외국어대에서 편찬하여 3년 전까지 사용되던 한국어독본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원문 교재마다 난이도를 구별해 놓은 지도 교범이 있다. 1학년 후반으로부터 2학년에 걸쳐 사용되는 이 독본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 1과 가장 어려운 난이도 6의 교재 첫부분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난이도1

판본체는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글씨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정음체라고도 한다.

난이도6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당신 아시죠?’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지?’ ‘대 보시구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날은 무슨 날이야, 일요일이지.’ ‘이그, 누가 일요일인 줄 모른대요?’ ‘오, 알았다. 그리고 보니 오늘이 개 패는 날일세 그래.’ ‘뭘, 어째요? 개 패는 날요?’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어 화자를 염두에 둔 한국어 난이도는 한국어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난이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일본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난이도의 설정과 그 단계적인 교육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2학년에서는 현행 한글맞춤법 이전의 철자법에 의한 문장(예: ‘독립신문’ 사설), ‘是日也放聲大哭’ 등 국한문도 학과에서 편찬한 ‘朝鮮語文體範例讀本’ 등을 이용해서 강의하고 있다.

(3) 어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 2학년 동안에 약 3600개 기초 어휘를 대상으로 한 단어 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에 어휘교육은 주로 청취, 강독을 통해서 행해진다. 교재 선택시에 문법적인 난이도와 함께 어휘 분야를 감안함으로써 가능한 한 기초적인 어휘들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추상적인 문장뿐만 아니라 요리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적 동작동사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형용사와 의성의태어 교육은 시급한 문제이다. 또 2학년 이후에는 반드시 남북에서 출판된 국어사전, 유의어반의어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고하게 하고 있다.

1학년 가을에 일본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대응관계를 약 2개월 동안 가르친다. 이것은 한자어 어휘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한자음 학습용 학과 교재는 아직 출판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어와 일본어에 공통되는 한자어에는 문체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그 차이를 자세히 기술한 사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

(4) 달성도

학생들의 달성도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하의 기술은 발표자의 관찰에 의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란 4가지 능력을 골고루 함양하는 데 성공했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4가지 능력 가운데 읽기 능력이 제일 우수하다. 특히 2학년 때에 집중적으로 강독을 하기 때문에, 독해 능력은 한국에 단기유학만을 갔다온 학습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쓰기 즉 작문 교육은 최근에 와서 강화하게 된 부분이다. 다음은 수년 전 1학년 학년말 시험 때 사전 예고 없이 한국어 수업에 대한 감상을 한국어로 쓰게 한 것이다. 일본어 간섭이 현저하게 나타난 예이다.

이 일년을 돌이켜 보면 괴루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발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또 조선어학과는 타학과와 비교해서 너무 엄합니다. 수업진도가 더 느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여유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수업에 따라가기만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어테스트 직전 밖에 단어 공부가 못 하니 공부해도 곧 단어를 잊어 버립니다. 숙제도 무척 어렵습니다.

일본어와 너무나도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한국어를 일본어 화자가 학습할

때 일본어를 직역한 문장을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일본식 한국어'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에 유의한 중급 및 상급 작문교재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단어 결합(collocation)을 감안한 중형 대역사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 대역사전은 아니지만 작년에 출판된 '연세한국어사전'과 같이 문형이 표시된 사전은 외국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복음이라 할 수 있다.

말하기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인 교수가 담당하는 회화 수업은 1학년으로부터 4학년까지 필수과목이 되어 있다. 학생들의 일본어 간섭에 기인한 오류(예: '감기를 끝다 → 감기가 들다', '80킬로도 있다 → 80킬로나 된다', '영양을 잡다 → 영양섭취를 하다')들이 역대 한국인 교수에 의해 수집되어 오고 있다. 일본어 영향 때문에 생긴 한국어 오류와 그 교정 경험을 가장 많이 쌓아 온 교육기관은 일본 전국 각지에 있는 조총련계 민족학교이다. 조총련계 출판사에서 출판된 자료가 이 점에서 참고가 된다.

듣기가 무엇보다도 최대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받아쓰기를 한층 더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청취 능력은 함양되지 않고 있다. 3, 4학년 선택수업에 청취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한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들리는 소리를 발음기호로라도 받아쓰고 자신의 착오의 경향을 분석하게 한다. 모음에서 /ɨ/와 [a][o], /ɛ/와 [i], 음절초자음에서 /b//c//ɣ/의 혼동과 off-glide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ɔ/와 [b], /ɮ/와 [d], 종성 위치에서 일어나는 /ɮ//o//ɔ/의 혼동 등의 오류 경향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비음의 구강 파열로 말미암아 일본어 화자가 이들을 유성파열음으로 청취하는 경향은 근대 이전의 한국어 일본문자 자료에도 현저히 나타나는 경향인데, 학습 첫단계에서부터 변이음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앞으로의 과제

동경외국어대학에서 편찬한 한국어교재(시판된 것은 제외)는 다음과 같다: 「初級朝鮮語讀本」(1980), 「朝鮮語文法便覽」(1981), 「朝鮮漢字音便

覽」(1982), 朝鮮語慣用句集(上1984/下1985), 「朝鮮近代文學史資料」(1986), 「中期朝鮮語資料選」(1986), 「朝鮮語初級教材」(I 1987/ II 1988), 「朝鮮語中級讀本」(1989), 「朝鮮語初級讀本」(1989), 「朝鮮語視聽覺教材」(1990), 「朝鮮語文體範例讀本」(1991), 「朝鮮語分類基礎語彙集」(1997).

시급히 작성해야 할 교재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 한자음 학습 교재, collocation과 일본어와의 차이점에 유의한 작문 교재, 의성의태어 교재, 회화 및 청취 교재 등이 그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으나 일본 각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⁶⁾의 현황과 그 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 달성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2개 한국어 검정시험이 한국어 능력의 급별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문화포럼(1999)에 의하면 1998년도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국내 고등학교는 165개이다. 중국어 353개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중국어 고등학교 교원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그 조직적인 활동의 결과로 1997년부터 ‘센터시험’에 중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실시되게 되었고 고등학교용 통일교재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어는 최근 들어 겨우 교원 사이의 연계가 시작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동경외국어대학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졸업생 5명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했다. 한국어가 ‘특수’ 외국어에서 독어, 중국어와 같은 일반적인 외국어로 인식되게 된 현재, 중등교육까지 포함한 한국어 교육 방법의 확립이 요청된다.

6) 東京外國語大學 語學研究所에서 1995년에 일본 국내 각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東京外國語大學 語學研究所編(1995), 「世界各國の外國語教育と外國語教育機關に關する調査研究」)에 의하면 회답 총수 176개 중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대학교는 48개였다.

《 참고문헌 》

- 菅野裕臣(1981), 『朝鮮語の入門』, 白水社.
- 菅野裕臣 외 편(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白水社.
- 菅野裕臣(1997), 「朝鮮語の語基について」, 『日本語と朝鮮語』, 國立國語研究所.
- 국제문화포럼(1999), 『일본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 국제문화포럼.
- 權在淑(1998), 『앞으로의 한국어』, 三修社.
- 大阪外國語大學朝鮮語研究室(1985), 『朝鮮語大辭典』, 角川書店.
- 東京外國語大學史編纂委員會(1999), 『東京外國語大學史』, 東京外國語大學.
- 東京外國語大學語學研究所 편(1995), 『世界各國の外國語教育と外國語教育機關に關する調査研究』.
- 東京外國語學校(1880), 『東京外國語學校一覽』, 東京外國語學校.
- 小倉進平(1964), 『增訂補注朝鮮語學史』, 刀江書院.
- 小學館, 金星出版社 편(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 野間秀樹(1988), 『길 朝鮮語への道』, 有明學術出版社.
- 野間秀樹(1999), 『暮らしの單語集 韓國語』, ナツメ社.
- 前間恭作(1907, 1974), 「韓語通」, 『前間恭作著作集』, 京都大學國文學會.
- 前間恭作(1924, 1974), 「龍歌古語箋」, 『前間恭作著作集』, 京都大學國文學會.
- 河野六郎(1946, 1979), 「中期朝鮮語の完了時稱に就いて」, 『河野六郎著作集』
第2卷, 平凡社.
- 河野六郎 외 편(1996), 『言語學大辭典』 第6篇, 三省堂.